스리랑카 불교계, 미얀마 민주화 동참

스리랑카 미얀마평화승가연합, 3월 27일 군부 규탄, 희생자 추모 행사도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유적지 루완웰리사야서
목숨 잃은 민주화 열사 추모
스리랑카 · 미얀마 연대 강화

스리랑카 불교도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 학살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화 사상을 고양시키는 의식을 봉행했다고 3월 29일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에 주둔한 미얀마 평화 승가 연합(the Myanmar Peace Sangha Unio)은 3월 27일(현지시간) 스리랑카의 불교 유적지인 루완웰리사야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목숨을 잃은 민주화 시위자들을 위한 불교 의식을 봉행했다.

해당 매체들은 이날 스님들이 군사 쿠데타 이후 구금된 미얀마 대통령 윈 민(Win Myint)과 외무부 장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고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은 미얀마와의 모든 무역 협정을 중단시키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섰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국제 연합전선 결속을 촉구한 상황이다.

유엔의 미셸 바첼렛 인권고등위원 등 고위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도피하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미얀마 군인들의 부끄럽고 비겁하고 잔인한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심지어 그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사지로 내몰았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민들을 군부의 잔학한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잔학한 범죄를 미연에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미얀마 군부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나아갈 길이 없다"고 했다.


아웅산 수치여사 석방을 촉구하는 스리랑카 스님들. 사진출처=mizzima.com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지난 주말 동안만 7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0여 명의 민주화 시위자들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누적 5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사망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윈 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장관, 국가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 동맹(NLD) 당원 등을 구금한 뒤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수십만 명의 미얀마 국민들이 윈 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장관의 석방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3월 28일(현재시간) 기준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에 따르면 쿠데타가 발발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주화 시위를 벌이던 시민 총 2600여 명이 구금되고 총 3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안 혐오에 사찰피해 "증오범죄 멈춰"

히가시 혼간지사, 애틀란타 총격 피해자 추모식도

지난 2월 말 아시안 증오범죄로 인한 훼불 사건이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불교사찰 히가시 혼간지(Higashi Honganji)가 망가졌던 경내 시설물을 복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사회에서 종교 등 차이로 인한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의식 개선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터넷 종교 매체 릴리젼 뉴스(the religionnews)는 3월 29일(현지시간) "히가시 혼간지 사원이 파손된 지 한 달이 지난 최근 망가졌던 창문과 등불을 복구했다"며 "그러나 사원 앞에 비치됐던 목조 등불 등은 여전히 재건 작업 중이다. 사원 관계자들은 추가 복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노리아키 이토(Noriaki Ito · 72) 주지 스님 등 사찰 관계자들은 사찰이 피해로 인해 요새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토 스님은 "우리 신도만 사찰 시설물을 향유하고, 불교도들만 사용한다면 도량은 오직 우리만을 위한 배타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지역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혼간지 사원의 파괴될 시설물. 사진출처=릴리젼 뉴스

이토 스님은 또 최근 한국인 여성을 포함해 총 8명이 사망한 애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증오범죄가 확산하는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망한 지 49일째가 되는 5월 4일에 희생자 추모식을 봉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해당 사원은 일본의 전통 등불 등 사찰 구조물 등이 방화로 인해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시아계 종교에 대한 증오범죄로 지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신심인가, 탐욕인가", 日황금불상 악용

가정 불교용품, 불단 보유
상속세 비과 제도 활용 증가

30~50% 일반상속세 대비
종교용품에는 세금 안붙어
금은방에서 물품 거래 많아

귀금속의 대표주자이자 자산인 금에 대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금으로 만든 불상과 불구를 활용한 상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본의 불교용품에 대한 상속세 비과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6일 '야후 재팬 뉴스', '프레지던트 온라인' 등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해져 국제 금값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금값은 20년 전에 비해 3.9배 올랐다.

불교는 금과 깊은 관계가 있다. 부처님의 몸은 금빛이 돈다고 하였고, 성도한 부처님께 사천왕은 황금발우를 공양 올렸다. 이러한 전통으로 사찰서도 불상과 수미단 등 예경에 관계되는 중요한 곳에는 금으로 장엄하고 있다.


킨카쿠지 금각의 모습. 사진출처=야후재팬

일본의 경우 교토 킨카쿠지(金閣寺) 금각이 유명하며, 금광이 있었던 이와테(岩手)현의 츄손지(中尊寺)의 경우 전각 내부 모두를 금과 나전칠기로 장엄한 콘지키도(金色堂)가 널리 알려져 있다.

사찰 뿐 아니라 가정불단 전통이 있는 일본의 경우 가정에서도 불단을 금으로 장식하곤 한다. 핵가족화에도 전국 가정의 50% 가까이가 가정불단이 있기에 금불상 수요는 만만치 않다. 특히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경우 극락정토가 금과 칠보로 장엄되어 있다는 경전 내용을 반영해 불단 자체를 금박으로 싸기도 한다.

이런 수요에 일본 귀금속 전문점이나 보석상 등에는 불상과 불구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다. 1000만엔(한화 1억여 원)을 넘는 금불상, 수백 만엔의 순금 촛대나 향로 등도 쉽게 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 가정 기도가 증가하면서 이런 금불상과 불구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앙심이 최근에는 악용되고 있다. 종교용품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세법에서 상속세는 1억엔 이하시 30%, 6억엔 이하시 50%로 세율이 높은 편이다. 부유층들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불교용품이나 순금 불상을 수집하는 것이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본디 불교용품을 비과세로 책정한 것은 전통적으로 깊은 신심에서 불보살을 예경하고, 돌아가신 선조들을 기리기 위한 신심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불상과 불구는 전통 공예품이고, 같은 무게의 금에 비해 더욱 고가이다. 당장의 세금을 피하겠다고 귀금속으로 된 불교용품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계율 시조, 감진화상 특별전 열려

最古초상조각 '감진화상좌상' 12년 만에 공개

일본 불교에 처음으로 계율을 전한 감진(鑑眞)화상과 일본불교 속 계율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특별전이 열린다.

3월 25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의 소식을 보도했다.

감진화상은 낙양과 장안 등지에서 유학을 마친 끝에 고향인 양주의 대명사(大明寺)에 주석했다. 당시 강남 제일의 스승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율맥을 지닌 율사를 초빙하려 한 일본 조정의 간청으로 도일을 결심, 5번의 실패 끝에 753년 6번째 시도에서 일본 땅에 도착했다.

이후 나라의 토다이지(東大寺)에 계단을 건립하고 최초로 사분율에 의거한 3사 7증의 수계식과 수계를 원하는 재가자들에게 보살계를 설했다. 감진화상에게 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토다이지와 대불을 조성한 쇼무천황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감진화상은 단순히 계율뿐만 아니라 당에서 발전해 있던 의학과 천문, 역법 등의 지식도 함께 소개했다. 이로 인해 일본 고대 불교사에서


감진화상좌상을 보는 관람객들. 사진출처=미술전내비

감진화상의 도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일본 불교 속 계율의 발전사를 살펴보는 특별전이 3월 27일부터 약 2달간 교토 국립발물관에서 개최되는 '감진화상과 계율의 발자취 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히 토쇼다이지(唐招提寺)에 봉안되어 있던 '건칠감진화상좌상'이 공개된다. 좌상이 산문 밖에서 공개되는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특히 이 좌상은 감진화상 생전에 조성된 초상조각으로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초상승상이다. 건칠상이라는 특성에서 주름하나, 수염 한 올까지 모두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